



그림 위너 송민호(맨 왼쪽)가 자신의 페인팅 작품을 선보이는 '코리안 아이 2020 특별전:크리에이티브 앤드 데이드림'에서 전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PCA

## 유명세 보단 실력... '아트테이너'의 반전

(미술+엔터테이너)

하정우·솔비 등 화가로 이미 유명 박기용·송민호 등 신진 작가 합류 '대중과 미술 가고 역할...새 영감도'

'아트테이너', 미술(Art)과 엔터테이너(Entertainer)의 합성어로, 예술활동을 하는 연예인을 가리킨다. 앞서 화가로서 다양한 작품을 내놓으며 미술계에서도 화제를 모은 가수 조영남·솔비, 배우 하정우 등으로 익숙하다.

이제 관련 재능으로 해외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는 케이팝과 한류 드라마의 주역들이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내걸고 예술 감각을 뽐내고 있다. "이름값이 더해졌다"는 일각의 편견도 없지 않지만, 미술·전시 관계자들은 대중과 미술의 가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을 드러내고 있다.

### ●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은 예술성"

그림 위너의 멤버 강승윤·송민호와 가수 헨리는 현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위몰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안 아이 2020 특별전:크리에이티브 앤드 데이드림(코리안 아이 2020)에 작가로 참여하고 있다. 독특한 앵글이 돋보이는 강승윤의 사진과 송민호와 헨리의 개성 강한 페인팅 작품이 30여 기성·신진 작가들이 내놓은 작품과 나란히 내걸렸다.

'스페셜 아티스트' 자격이기는 하지만, 전시를 주최하는 현대미술 후원 비영리 기업 PCA(Parallel Contemporary Art)의 창립자 시클리타라 부부 등 전문가들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10월13일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리는 '스타트 아트페어'에도 참여한다.

19일 PCA 한국 담당 김선희 대표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국립미술관과 사치 갤러리 등 앞서 같은 전시가 열린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 작품을 직접 선정했다"면서 "이들의 작품 세계가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인기 많은 아트테이너의 작품이 탈락했을 정도로 전시와 선정 기준이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술작가로 데뷔한 연기자 박기용도 3월 '한국회화의 위상전'에서 특별상인 'K아트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강렬한 색감을 담은 작품들로 화제를 모은 그는 지난달 개최한 개인전에 700여 관람객을 불러들였다.

### ● "미술에 대한 친근감 알린다"

이들의 활동은 미술작가들에게는 대중과 접점을 늘려가는 계기로 통한다.

박기용은 최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박기용의 컬처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방송으로 김정기 작가 개인전, '마롱197' 갤러리 전시회 등을 소개했다. 작가들을 초대해 실시간으로 이들의 작품에 대한 일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숨은 진주' 같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의지로 섭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코리안2020'에도 스타의 팬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찾아왔다. PCA 김선희 대표는 "연예인 작가들이 끌어들이는 대중적 관심이 다른 작품에까지 뻗어가는 추세"라면서 "누구나 미술을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강승윤·송민호·헨리와 기성작가들이 교류를 통해 서로 새로운 영감을 주고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콜롬비아 라디오 방송 'BTS 핏들기' 논란



방탄소년단

콜롬비아의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이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실 왜곡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지만, 이마저도 '엔터리'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이하 한국시간) 엘티엠 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라메가 채널의 '엘 마네로'의 진행자인 알레한드로 비아로보스가 9일 신청곡인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를 내보내며 멤버들을 '그 중국인들'(esos chinos)이라고 가리켰다. 이어 "그들이 돈으로 차트 최상위에 오르고, 돈으로 그래미 시상식에 갔다"고 말했다.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표현이 거뻐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성의 없이는 비난이 이어졌다. 엘티엠포 등 현지 매체들은 19일 관련 논란을 소개하며 "그룹의 성공은 멤버들과 소속사의 노력, 팬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예뉘러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 언터처블 멤버 슬리피 10월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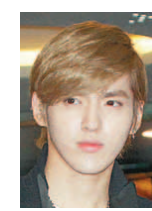
슬리피

힙합듀오 언터처블의 멤버 슬리피(김성원·37)가 비연예인 여성과 10월 결혼한다. 19일 슬리피는 SNS를 통해 "소중한 연인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든든히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예비신부를 소개하며 "배우자가 비연예인인 점을 배려해 조심스러운 시기에 조용히 식을 치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2008년 데뷔해 엠넷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했다. 최근 MBC '복면가왕'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 13인조 세븐틴, 현 소속사와 전원 재계약

13인조 보이그룹 세븐틴이 현 소속사와 전원 재계약하면서 팀을 유지하게 됐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19일 "에스롭스, 정한, 조슈아 등 그룹 세븐틴 멤버 전원과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멤버들도 "13명 모두 서로를 향한 믿음과 그간 다져온 견고한 팀워크로 계속 함께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5년 데뷔한 그룹은 최근 미니 8집 '유어 초이스'로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5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중국서 성폭행 의혹



크리스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가 중국에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한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리스가 늦은 밤 캐스팅을 위한 면접 등을 핑계로 7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에게 만남을 요구한 뒤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19일 크리스는 SNS를 통해 "누군가를 유인해 강간하는 일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크리스는 엑소로 데뷔한 지 2년 뒤인 2014년 SM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활동 중이다.

#### 연예계 확진자 속출...영탁·장민호도 양성

연예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트로트 가수 영탁과 장민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3일 TV조선 '뽕송이화랑'에 출연한 박태환·모태범의 확진으로 인해 14일 오전 검사에 따른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해왔다"며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실시한 재검사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도 보조 출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촬영을 중단했다. 한편 한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임영웅은 이날 "음성"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김소혜 "극한의 상황 '귀문', 몰랐던 성격 들통나는 느낌"

수련원 찾은 대학생들의 리더 역할 '윤희에게' 후 두번째 스크린 도전

"애뜻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이 따뜻한 온기로 전해진 영화". "실생 활인 듯 자연스러운 연기", "배우 연기도, 목소리도, 연출도, 영상도. 아름다웠다는 말이 딱인 영화"...

2019년 영화 '윤희에게'의 주연 김희애와 그의 딸 역할을 연기한 신인을 향한 관객의 찬사이다. 신인은 그룹 아이오아이의 김소혜이다. 엄마의 첫사랑을 함께 찾아 나서는 딸의 애뜻함, 남자친구(성유빈)와 엮여가는 여자친구의 발랄함을 연기에 호평받았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그에게 신인여우상을 안긴 것도 차세대 스크린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댄 것이기도 했다.

'윤희에게'는 가수로서 무대에서 왔던 김소혜의 스크린 데뷔작. 첫 작품으로 받은, 넘치는 호평이 두 번째 작품 앞에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부딪히고 성장해가는 때이다"며 당찬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선택한 무대가 공포영화로, 8월 개봉하는 '귀문'(감독 심태근·제작 고스트픽처스, 주피터필름)이다.

영화는 1990년 집단 살인사건이 일어나 폐쇄된 수련원을 배경으로, 심령연구소장과 호기심 많은 대학생이 그 안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소혜는 수련원을 찾은 대학생들의 리더로 나서 이야기를 이끈다.

전작을 통해 쌓은 영화계 안팎의 기대에 그는 부담감 대신 "성장"에 대한 희망을 말

했다. 극중 캐릭터에 빗대 "정신력, 추진력, 리더십이 강한 인물이다. 난 정신력이 가장 강한 것 같다"면서 "추진력은 부족하고 리더십은 요즘 생겨나고 있다"며 웃었다. 아직 연기 신인으로서 그만한 여유를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일. 그는 "들어간 이는 있지만 나 온 이는 없다"는 '귀문'에 관한 과담을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자신도 몰랐던 성격이 들통나는 느낌이였다"며 바로 "그 점이 매력적이었다"는 말로 답대함을 과시했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을 맞은 그룹 아이오아이의 동료들로부터도 응원을 받고 있다는 그는 담대함으로 빛어낸 자신의 이야기를 멤버들에게 선보이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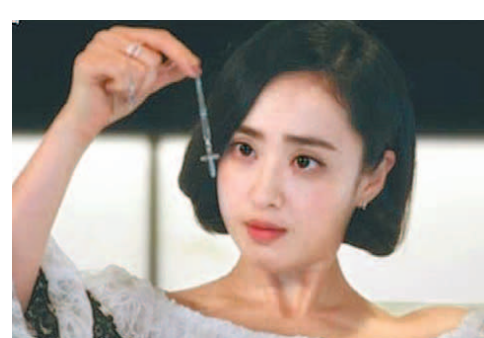
2019년 '윤희에게'에 이어 8월 개봉하는 '귀문'으로 스크린에 다시 나서는 김소혜가 19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 CGV

## 무시무시한 '비선실세' 김민정 인생캐릭 추가

tvN '악마판사' 정선아 역 연기 호평

연기자 김민정이 '악녀'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질 기세다. tvN 드라마 '악마판사'에서 잔인하면서도 세련된 악역을 연기하며 시청자 호기심을 잡아끌고 있다.

김민정은 재판이 하나의 거대한 쇼가 되어버린 미래사회를 그리는 '악마판사'에서 사회적 책임재단 상임이사 정선아



tvN '악마판사' 김민정

역을 연기한다. 권력집단을 비호하면서 '비선실세'로까지 올라선 인물이다. 법정 생중계를 통해 이목집을 높인 스타 판사 지성이 관련 비리를 파헤치면서 그와 팽

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을 스틸 있게 펼치고 있다.

어느 순간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냉철한 캐릭터로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좀처럼 속을 알 수 없어 반전의 핵심으로도 통한다. 김민정은 "악녀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선아 역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면서 "재단 상임이사라는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스타일링도 신경 썼다"고 밝혔다. 활약에 힘입어 드라마는 방영 3주 만인 18일 6%(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넘기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에는 각본을 쓴 부장판사 출신 문유

석 작가와 연출자 최정규 PD가 만장일치로 캐스팅한 뒷이야기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tvN 드라마 공식 계정이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문 작가는 "세고 무시무시한 여성 '빌런'(악역)의 이미지가 싫었다"면서 "해맑고 천진하면서도 잔인한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찾다 최 PD의 추천으로 김민정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인 '미스터 션샤인'의 카리스마 있는 쿠도 히나 캐릭터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막연하게 떠올렸던 정선아의 캐릭터를 김민정이 더욱 매력적으로 구현해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